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쌍둥이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쌍둥이가 있을 수 있을까?

지난달 27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첫 돌을 앞두고 있는 칼더와 알렉산드라는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쌍둥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 절반만 일치하는 쌍둥이다.

칼더-알렉산드라는 아버지가 2명, 어머니가 1명이다.
아버지인 사이먼 버니 에드워즈와 그레엄 버니 에드워즈는 영국 런던에 사는 동성 커플로, 신혼여행으로 떠난 캐나다에서 대리모 사이트에 사연을 올렸다. 사이트를 통해 이들을 알게 된 뒤 대리모가 되어 주기로 결심한 여성이자 쌍둥이의 어머니인 메그 스톤은 캐나다 여성으로, 자신 역시 각각 12살·5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세 사람은 캐나다에서 각각의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 체외수정을 시도했고, 이를 동시에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출산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영국이 각기 다른 유전자를 이용한 복합적인 체외수정은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및 캐나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모가 되어 준 스톤은 "대리모 사이트에서 사이먼-그레엄 커플의 프로필을 봤고, 이들이 매우 행복한 미소

를 짓고 있다고 느꼈다." 면서 "나는 얼마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홀로 지내고 있었으며,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 여겨 대리모가 되기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아버지 중 한 명인 사이먼은 "스톤이 영상통화를 통해 두 개의 배아가 모두 착상에 성공했다며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려줬을 때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면서 "우리는 곧바로 캐나다로 날아갔고, 임신 19주차가 된 그녀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들의 발차기를 느꼈다." 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우리 커플은 쌍둥이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의 아이들까지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했다." 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커플에게 쌍둥이를 안겨 준 과학의 발전에 놀라고 있다." 고 덧붙였다.

'러시안룰렛' 게임하던 경찰 총맞고 사망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이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다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CNN에 따르면 이 경찰청의 캐틀린 앨릭스(24·사진)는 지난달 24일 동료 경찰관인 나다니엘 헨드렌(29)의 집에서 그와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던 중 나다니엘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건 당일 캐틀린은 비번이었으며 나다니엘과 그의 파트너 경찰관은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은 두 사람에게 총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경고하고 방을 나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캐틀린과 나다니엘이 6연발 리볼버에 총알 한 발을 장전하고 서로에게 한 번씩 방아쇠를 당겼으며, 두 번째 세트에서 나다니엘이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총알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을 나갔던 동료 경찰관이 총소리를 듣고 돌아와 가슴에 총을 맞은 캐틀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앨릭스의 어머니 에이미 채드윅은 "딸은 쉬는 날에도 동료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료들과 유대 관계를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청 측 변호인 킴벌리 가드너는 "계획된 살인은 아니었으나 나다니엘이 근무 중 벌어진 사로고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면서 "3~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나다니엘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러시안룰렛' 은 19세기 러시아 감옥에서 교도관들이 죄수들에게 강제로 시키며 누가 죽을지 내기를 벌인데서 유래했다.

동생인 줄 알고 안락사에 동의한 여성

병원의 실수로 한 여성이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29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쉬렐 파웰(48)은 지난해 7월 남동생 프레드릭 윌리엄스(40)가 뉴욕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시 병원 측에 따르면 파웰의 동생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사상태에 빠졌고, 시간이 지나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다른 가족과 상의 끝에 동생의 안락사를 결정했다.

이후 파웰은 가족들과 동생의 장례 준비를 하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가 안락사를 결정한 남성이 실제로는 동생이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남성이라는 사실이었다.
조사 결과, 일의 발단은 안락사 결정을 통해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된 남성과 파웰의 동생을 혼동한 병원 측의 실수였다. 병원 측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실려 온 남성의 진료기록을 찾아 가족에게 연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별이 같고 나이도 같은데다 이름까지 비슷한 남성을 파웰의 동생이라고 착각하고 파웰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
실제로 파웰의 남동생은 40세의 프레드릭 윌리엄스였고, 실수로 안락사 된 남성은 역시 40세의 프레디 클레런스 윌리엄스였다. 파웰의 남동생은 폭행 혐의로 맨해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졌다.

파웰은 "숨진 남성이 남동생과 외모까지 비슷해서 이러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놀라 어찌할 줄을 몰랐다." 고 전했다. 이어 "나는 알지 못하는 남성의 마지막 숨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봤고, 후에 그가 내 남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화가 나고 눈물이 쏟아졌다." 며 "누군가의 아버지 또는 동생일 수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고 말했다.
파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안락사 된 남성의 가족을 수소문하려 했지만, 당국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웰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